

# 「환경위기, 현대문명의 위기」

## II.

지난해 6월 브라질 리우에는 180개국의 국가 정상급들이 모여 오늘의 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UN환경과 개발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와 동시에 세계 7,000여 민간단체들도 「'92 지구환경회의」를 개최하고 지구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였다.

지구 생태계의 한계를 넘어선 오늘의 대량생산, 대량소비체계는 이대로는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으며, 개발과 환경이 조화되는 새로운 범 세계적 차원의 지탱가능한 개발의 사회경제체계 수립을 위하여 국제적 협력이 요청된다는 것이다.

우리 시대 환경문제의 특성은 이대로 가다가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의 생존기반이 붕괴된다는 것이다. 또한 산업화와 도시적 생활양식의 지탱구조가 바로 환경파괴의 주범이며, 환경문제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문제의 해결은 일개 국가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촌의 문제이며 국제적 연대와 협력없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 III.

과연 지구는 구제될 수 있을까? 지구의 미래는 있는가? 인류 공동체는 엄청난 환경파괴로 인한 오늘의 환경위기를 극복하고 바람직한 미래 사회를 건설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죽음의 문화로 일컬어지는 파괴적인 과학기술 문명사회로부터 생명의 문화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환경적인 사회경제체계를 수립해 갈 수 있을까? 환경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은 얼마나 될까?

환경문제가 갖고 있는 성격들—잠재적이고 포괄적이며 복합적이고 미묘한—만큼이나 그 처방전도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오늘의 환경파괴가 '새로운 재난'으로 일컬어지듯 그 처방전도 실로 엄청난 규모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약삭빠른 지식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앞다투어 환경문제의 알팍한 처방비법을 내놓으며 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정직한 현대의 지성인들이 인류 공동체에게

김 성 수 / 대한YMCA연맹 환경사업부장

## I.

지구촌 전체가 환경위기를 맞고 있다. 인간의 생활은 밥 먹고 옷을 입고 세수하고 여가를 즐기는 등 모든 것이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 그런 점에서 환경문제는 바로 인간의 삶과 생존의 문제이다. 오늘의 환경문제는 그 피해가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지구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데 그 심각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보다 더 근원적인 심각성은 오늘날 인류 공동체의 삶의 방식이 지속적으로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데 있다. 우리들의 삶의 방식과 오늘날의 문화는 생태환경을 파멸시키는 죽음의 문화이다. 산업화된 생산양식과 도시생활의 소비양식으로 특징지어지는 오늘의 문화를 환경적으로 새로 변혁시켜 생명의 문화를 다시 일으켜 세우지 않는다면 전 지구적 차원의 위기는 극복되기 어려울 것이다. 자연자원의 고갈과 오존층의 파괴, 산성비, 사막화, 극심한 해양오염, 지구의 온난화 현상을 목도하면서 아직도 하나뿐인 지구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인류 공동체의 무한한 진보를 조장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꿈(?)의 세계인 쓰레기 매립장으로 주거지를 옮겨 주는 것이 마땅하리라.

닥친 환경위기 앞에서 자신들의 무력감을 토로하며, 문명의 전환을 근본적으로 요청하고 있음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문제를 바르게 알고 위기를 실감하며 철저히 좌절하는 것은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위기의 시대를 희망의 시대로 바꾸어 가기 위해서는 오늘의 환경위기를 현대문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 IV.

세계의 많은 석학들은 오늘의 환경위기를 바로 '현대문명의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생명에 대한 종교적 가르침들 속에서 찾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원주민들의 윤리와 풍습들 속에서 새로운 생태윤리를 발견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리우에서 열린 세계 민간단체 지구환경회의에는 많은 종교단체 지도자들도 참석하였다. 이들은 지구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철야기도회를 가졌다. 불교, 기독교, 천주교, 힌두교 등 수많은 종파들이 이 기도회에 참여하여 각자 자신들의 전통적 의식을 거행하였다. 하나뿐인 지구를 구하기 위해 세계의 종교가 하나가 되어 연대하는 자리였다. 오늘의 문명이 잃어버린 정신적 지주를 새로이 구축하여 종말이 가까운 세상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지구를 구제하기 위함이었다. 오늘의 환경위기와 문명의 위기는 정신문화가 도태한 데 근본원인이 있다.

#### V.

인간의 이기적인 탐심 위에 세워진 사회경제체계는 결코 지속될 수 없다. 그 중 인류 공동의 자산인 자연자원의 독점화 현상은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100명이 100개의 빵으로 살 수 있는 것을 독점적 정치경제체계는 그 백 배가 넘는 1만 개의 빵을 생산해 놓고도 세계의 절반의 인구가 기아와 빈곤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한 환경파괴, 자원남용, 쓰레기 양산, 비인간화 현상은 우리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바이다. 남반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열대림 파괴와 자원의 약탈은 산업화된 북반구의 생산·생활양식과 남반구의 개발독재체제의 합작 산물이다.

비민주적이고 독재적인 정치체제는 권력을 이용

하여 자연자원을 독점화시키고 나아가서는 환경을 파괴하고 비인간적인 사회체계를 형성해 놓는다. 자원의 독점화를 막아내고 지구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구촌 전체의 민주화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바로 지역 민주주의의 확산을 의미한다. 지역 민주화, 이것은 자원의 독점화를 막고 지역의 생태환경에 적합한 산업구조를 형성하며, 이에 걸맞는 소비생활양식을 확립해 가는 일이다. 그리하여 폐기물의 지역간 이동을 줄이고 지역내에서 처리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로 정의롭지 못한 사회경제질서는 환경문제를 심화시킨다는 점이다. 저곡가 정책으로 인한 농촌의 피폐화와 인구의 도시집중, 아파트, 부동산 투기와 주거불안정, 교통문제, 청소년·교육 등도 모두 환경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는 직·간접적인 원인이다. 교통체증으로 인한 대기오염, 산성비 문제 등은 물론이고, 주거불안정으로 인한 매년 칠백만에 달하는 인구가 이사를 한다면, 이 또한 얼마나 엄청난 에너지 소모와 환경파괴현상인가? 열대림을 파괴해서 수입해오는 목재로 만든 가구를 이사철마다, 유행따라 바뀌었다면 그 또한 얼마나 큰 환경범죄인가 말이다.

과밀한 도시의 인구집중이 우리의 정다운 이웃과 여가생활공간을 앗아버린 결과 도시인들의 여가생활은 환경파괴 그 자체이다. 도시인들을 유혹하는 향락가의 요란한 네온사인파와 전력 낭비는 물론 주말과 휴가철에 치루어내는 교통전쟁과 국립공원의 생태계 파괴와 쓰레기 몸살은 말할 것도 없고 전국 도처에서 자행되는 산림파괴와 하천오염 또한 매우 심각하다 할 것이다.

세째, 이처럼 인간의 이기적 탐심 위에 세워진 사회경제체계를 새로이 변혁하여 진정한 지속가능한 환경적 사회경제체제로 바꾸어가기 위해서는 21세기를 향한 '시민문화혁명'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소비생활양식을 환경적인 생활양식으로 전면 개편해 가야할 것이며 근본적으로 물신주의적 가치관을 쇄신하는 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생산의 시대에서 문화의 시대', '위기의 시대로부터 희망의 시대'를 열어가야 할 것이다.